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요압과 시므이가 솔로몬의 군대장관인 브나야에 의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의 조카인 요압까지 처형하는 것은 너무나도 심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 요압과 시므이는 그들이 뿌린 대로 씨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요압의 죽음

다윗의 유언에 대한 내용을 듣고 천하의 요압은 겁에 질려 도망하게 됩니다(26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야를 따랐음이라.”). 그리고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게 됩니다. 다윗 시대 때 성막이 있던 장소는 다윗 성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성막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당시 성막의 제단 뿔은 이스라엘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이전에 압살롬을 따라 배반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아도니야를 따라 다윗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기 때문에 그의 반역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압에게 있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 다윗은 두 가지 죄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죄없는 두 사람을 자의대로 죽였기 때문입니다(31-33절,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평강이 영영히 있으리라.”). 여기서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압이 당시에 행한 일이 다윗의 뜻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 중에 투항을 결정함으로써 그의 편으로 받아주고자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뜻과는 달리 요압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 이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은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좋지 못한 오해가 생길 뻔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게 되고 요압에 대한 거친 속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삼하 3:38-39,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께서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라도 하니라.”). 이 때부터 요압은 다윗의 눈 밖에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다윗의 반역자이자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도 죽이고 결국 마지막에는 아도니야와 함께 다윗까지 반역을 하게 되면서 더이상의 자비는 주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므이의 죽음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를 바로 처형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시므이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 아닌가 추정됩니다(8절하-9절,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은 시므이의 이중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일로 인해 그를 죽이지 않기로 여호와께 맹세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말대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이같은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를 바로 죽이지 않은 것을 보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조건부 약속을 내리게 됩니다(36-38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종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것을 시므이도 ‘ 좋게 여겼다’는 것은 아마도 그가 다윗의 유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윗과는 달리 자신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한 솔로몬의 제안을 시므이는 좋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시므이는 방심을 하게 됩니다. 시므이는 그가 한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의 종들이 자신을 배신한 일로 인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찾으려고 가드로 가게 됩니다. 이는 시므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떠나 가드까지 갔다가 돌아온 일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솔로몬과의 약속을 위반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시므이는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44절,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다윗의 시대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요압과 시므이를 죽으면서까지 구지 제거하기 원했을까요? 다윗은 그의 왕권을 이용하여 충분히 그들을 왕권 중에서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특히 요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일찍 제거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요압과 함께 저지른 죄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요압과 시므이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월권하고 비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런 요압과 시므이가 살아 있게 되면 자신의 가족들 뿐 아니라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좋지 않은 사람들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께서 세우신 세상의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에 우리가 순종하고 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리더십의 위기가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아무런 이유와 특별한 잘못도 없이 리더십을 흔들고 불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당시의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왕권도 오늘의 상황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교훈합니다(딤후 2:1-2,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한국을 위한 기도:** 한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섬기고 바르게 정치하는 국가의 올바른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3. **선교지를 위한 기도:** 태일(1 국)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 **교회를 위한 기도:** 노스헤이븐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